

2004년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상 포천시 행정자치부장관상 受賞

포천시, '송우가구단지 상징조형물' '현수막 조형게시대'



포천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광고물 정비사업추진이 '2004년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상'전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로 이어졌다.

포천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광고물 정비사업추진이 "2004년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상"전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로 이어졌다.

지난 24일 올해로 열두 번째 열리는 "2004년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상" 시상식에서 포천시는 올해 처음으로 출품해 2개 출품작 모두 수상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광고사업협회가 주관하고 행

정자치부가 후원한 이번 광고전에는 전국에서 지역예선 심사를 거친 총 118점이 본선에 출품됐으며 그 가운데 58점이 입선된 가운데, 포천시가 출품한 '송우가구단지 상징조형물'과 '현수막 조형게시대 2점 모두 조형성과 독창성 등을 인정받아 "우수상"인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포천시 축석 송우간 6Km에 이르는 "송우가구단지"에 난립된 간

판들을 정비하기 위해 포천시는 2003년 경기도로부터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받은 후, 상가 업주들과 포천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던 대형 지주이용간판 206개를 철거했으며, 80여 개의 원색적인 대형 가로이용간판도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제작, 교체했다.

또 주변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200여 개의 전신주를 대상으로 "전신주 환경 디자인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포천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참신한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기여했다.

포천시는 지난 7월부터 ▶낙후된 포천시의 옥외광고문화를 척결하고 ▶절제된 디자인으로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며 ▶지역고유의 이미지를 담은 동질성을 구축하기 위해 "포천시 옥외광고물 표준시안"을 완성, 운영해오고 있다. 따라서 포천시의 이번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상 수상은 우연이 아닌 시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일관된 노력의 결과물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수상은 또 광고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정체성 있는 포천시의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병기기자 jk61@paran.com



포천경찰서는 지난 20일 본서 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경찰관서 기습진입 및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자체 경비훈련(FTX)을 실시했다.

포천췌, 기습·돌발사태 대비 FTX 실시

기습침입 대비 실전같은 훈련 실시

포천경찰서(서장 최원일)는 지난 20일 본서 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경찰관서 기습진입 및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자체 경비훈련(FTX)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본서 기습진입 및 집단행위, 청사점거 등 각종 돌발위해활동에 즉각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경찰서를 경비(방호)하고자 실시했다.

한편, 이날 가상사나리오인 시청 앞에서 포천시민 50여명이 집회중진입을 시도하려다 경찰 병력배치로 진입을 못하자 이에 시청

진입을 포기하고 경찰서에 항의키 위해 오고있는 상황으로 시위대를 최초로 발견한 정문 근무자의 상황전파로 시작으로 100여명의 경찰관과 전·의경들이 신속하게 장비를 갖추고 경찰서 정문과 후문의 기습침입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 지휘를 한 경무과장은 평상시에 실전같은 훈련으로 유사시를 대비하고자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며, 항상 즉응태세에 대비한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선단동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희망 전달

선단동 새마을지도자 남·녀협의회 앞장



선단동은 동절기를 맞아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독거노인 김장김치 전달하기'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선단동(동장 강병수)은 함께하는 선단, 참여하는 선단을 만들어 가기 위해 동절기를 맞아 저소득층 주민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사랑의 집 고쳐주기'와 '독거노인 김장김치 전달하기', '사랑의 연탄 배달하기'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8일 선단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이방목)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오은자)는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6세대를 방문해 도배와 장 관 등을 교체해 주었다.

금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의 수혜대상자인 통고 4동의 순부녀(77)할머니는 "사랑을 사서 할 형편이 못되어 언제 도배를 할까 큰 걱정을 했는데 선단동 새마을지

도자협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방안의 짐을 다 빼주고 도배까지 해주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시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지난주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일일차집 운영 수익금 등으로 독거노인 30세대에 김장김치 약 400포기를 담가 직접 전달함으로써 함께 하는 선단동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격찬을 받고 있으며, 이날 말까지는 저소득층가구 9세대에 대하여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으로 세대당 연탄 200장씩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선단동 남, 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회원들이 힘을 모아 실시한 사업이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이 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앞으로도 이웃사랑운동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2005년도에도 따스한 사랑을 전달하는 선단동의 파수꾼을 자임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하는 선단'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우리 동네를 말한다 ⑫

일동면 기산8리 심진선 이장

외자유입 주민과의 융화에 앞장서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기산8리를 이끌고 있는 심진선 이장.

앞쪽으로는 청계산과 뒤쪽으로는 금주산으로 둘러싸여 아늑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이 마을은 60여가구의 자연부락과 100여가구의 군인가구, 인근 골프장 직원들의 40여가구 등 200여가구 680여명의 주민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다.

이 마을은 2002년부터 지켜온 젊은 이장 심진선(33)씨. "60대 이상의 노령인구가 60%를 넘어 마을의 경제수입원은 벼나 마(麻)를 재배하는 등 소작 농업이 전부다"고 말한다. 마 재배의 규모는 작지만 이 작물은 현재 서울 경동시장에 직접 출하하고 있다고 한다.

이 마을은 80년대 후반 기산4리에서 분리돼 새로이 8리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심이장은 "예부터 소아와 진사리라는 두 마을이 지금의 기산8리다"며 "마을의 유래를 알아보려 했으나 그것을 아는 분들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5개반으로 구성돼 있는 이 마을은 심이장을 중심으로 노인회,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영농회 등이 마을발전을 위해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부녀회는 불우이웃을 위해 김장을 담가주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올해 봄 마을 안쪽 길에 가드레일 설치와 도로를 포장했다. 특히 가드레일 설치에 대해 심이장은 "마을의 도로가 비좁아서 특히 겨울철 차량교행시 하천으로 추락하는 등 예방할 수 없어서 생각해낸 묘안이다"고 밝혔다.

심이장은 마을 주민들의 노령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걱정이 많다.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며 "노인들을 위해 5월 경로잔치 등의 행사를 베풀기도 하지만 진정 그분들을 위한 건 스스로 재미를 찾을 수 있는 마련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마을은 인근골프장의 사택이 생기면서 시골에서 보기 힘든 해프닝이 생기고 있었다. 바로 주차문제!

"직원사택 입주주민들이 1가구에 평균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지해 마을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최근 개통한 신47호선 국도가 마을을 반으로 나눈 것도 모자라 심각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면의 협조를 받아 국토관리청에 진정을 내고 있지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며 피해를 더 커지기 전에 조속히 해결해줄기를 바라고 있다.

심이장은 최근 개최된 일동면민체육대회에 출전함에 있어 주민회합의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 "이전까지 군인가구와 상생하며 살면서도 어울리지 못했는데, 체육대회를 기회로 함께 출전해 앞으로 교류를 갖고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러 "현재 유입된 외지인들과도 더욱 많은 교류를 가질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이장은 앞으로 마을 발전을 위해 많은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버섯특화사업 추진에 계획을 밝히고 있다.

"버섯특화사업 신청으로 한번의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며 "마을 주민의 고령화 추세를 베풀기도 하지만 진정 그분들을 위한 건 스스로 재미를 찾을 수 있는 마련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마을은 인근골프장의 사택이 생기면서 시골에서 보기 힘든 해프닝이 생기고 있었다. 바로 주차문제!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수도사업소, 영북면에 농기계 증정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



지난 20일 영북면사무소 광장에서 개최된 농기계전달식에서 대화산리와 소화산리 이장들이 트랙터를 시운전하고 있다.

포천시수도사업소(소장 김용기)는 지난 23일 영북면사무소 광장에서 '2004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기계전달식을 가졌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개최된 이번 농기계전달식은 주민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영북면 대화산리(이장 홍

순식)와 소화산리(이장 신동진)에 증정된 트랙터는 각 1대씩으로, 증정된 농기계는 국고 1천7백40만원과 시비(출연금) 4천60만원으로 총 5천8백4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됐다.

대화산리의 홍순식 이장은 "트랙터를 지원 받게돼 농작물을 더욱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 농기계가 마을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 상수원보호구역은 1992년 총10.874km의 면적이 지정되었으며 ▶영북면 5.718km ▶관인면 4.446km ▶창수면이 0.710km를 차지하고 있다.

농기계전달은 상수원보호구역에 1년에 한번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관인면과 창수면에서 이미 실시됐으며, 이날 행사는 하반기 지원 대상인 영북면 농민들에게 전달됐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느낌이 다르다! 크리닉 헤어

장 헤어 feel

나만의 헤어스타일을 강조하고 싶다!

커트 · 파마 · 염색 메니큐어 · 드라이

※ 크리닉 헤어 전문상담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버스터미널 맞은편) Tel. 031)543-5535 원장 장 경 속